

## 사회



## 뻥 뚫린 동광주~고서 구간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고서 구간이 20일 정오 기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돼 전면 개통됐다.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대 혼잡이 해소되고 고속도로 점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니명주기자 mnja@kwangju.co.kr

## 광주 대형건물 15곳 중 1곳

## 레지오넬라균 검출

##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광주지역 내 대형 건물 15곳 중 1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군 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의 원인균으로, '독감형'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고 1주일 안에 회복이 되지만 '폐렴형'은 식육감과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호흡부전과 쇼크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따르면 광주지역 내 종합병원·요양원·백화점 등 대형건물 292곳의 냉각탑 물과 은수·냉수 배관을 검사한 결과 이 중 19곳(6.5%)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검출 건물주에 대한 살균소독과 세정 등을 권고했다.

균이 검출된 19곳 중 11곳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는 바람직한 범위

(103 미만/ℓ)였으며, 관찰이 필요한 범위(105 미만/ℓ)가 7건, 주의가 필요한 범위(106 미만/ℓ)는 1건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건물주들에게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냉방기 가동이 급증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철에 레지오넬라균이 급격하게 증식할 수 있는 만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환경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균으로 냉각탑 및 배관의 소독, 세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름철에도 호흡기질환의 유행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무엇보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모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주민이 공원 조성계획 바꿨다

## 광주시,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 대신 생태공원으로

## 주민 2420명 재수립 청원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공원조성 계획이 다시 수립될 예정이다. 광주 중앙공원 인근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420명이 지난 1992년 수립된 중앙공원 조성계획의 재수립을 청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균린공원 인근 5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 2000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연자치단체장은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일 오전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앙공원유스호스텔건립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을 요구하

는 주민서명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어 대책위는 광주시의회에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을 위한 청원서'도 함께 보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18년 전 수립된 중앙공원 조성계획 대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신규 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1992년 수립된 조성계획에서는 중앙공원을 유희시설지구로 조성해 광장, 전망휴게소, 수변휴게소, 유희시설지, 식당 및 매점, 주차장 등을 배치할 예정으로 시설물 설치 위치, 녹지 훼손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청원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만큼 공원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중앙공원을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꾸밀 예정"이라며 "각계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우 주민청원이 다른 공원으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맞아 소속 시민단체들은 이번 청원을 위해 지난 해 말부터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광주시 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서구와 남구에 걸쳐있고, 면적만 293만 9337㎡에 달한다. 이처럼 중앙공원은 면적이 넓고, 교통이 편리하며 산책로까지 두루 갖춰져 과거 특급호텔이나 유스호스텔 부지로 부각됐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조성이 무산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청원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만큼 공원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중앙공원을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꾸밀 예정"이라며 "각계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휴일도 거리청소·쓰레기봉투 수거

## 광주시, 미화원 근무체계 개선...대로변 위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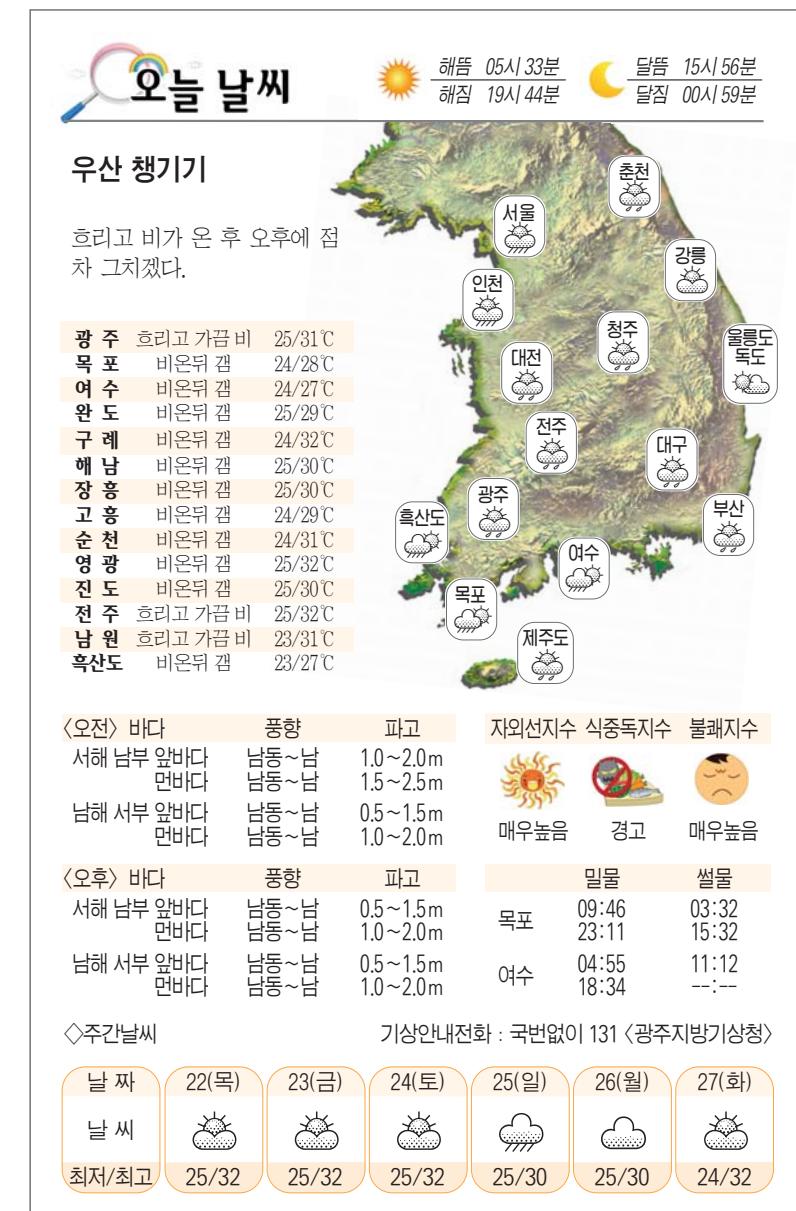
광주시는 20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거리청소를 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부분적으로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거리청소를 전담하는 각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884명 중 절반이 442명을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해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위주로 청소하기로 했다.

또 각 자치구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청소자 1~2대를 운영해 주로 대로변에 놓여져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휴일에 상부지구 등 상가밀집 지역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가 발생해 환경미화원 등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EBS, 대입 수시강좌 개설

## "가슴 커지는 식품" 광고

## 알고보니 태국산 칡

EBS는 "수능강의 전문 사이트 (www.ebsi.co.kr)를 통해 올해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EBS는 22일 개설하는 '논·구슬 심화과정'에서 영역별 배경지식, 영역별·주제별 지문분석 및 접근법, 영역별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7일부터는 대학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전공 적성 대비 강좌'를 개설하고, '정시·수시 대학별 실전 강좌'도 마련한다.

/연합뉴스

**광주 MBC 투어 여행**

**광주 MBC TOUR 여름 제주 생태탐방**

• 일시 : 2010년 7월 10일 ~ 15일  
• 장소 : 제주도

**MBC TOUR SUMMER VACANCE**

**여름 풍물 여행**

**여행 일정**

- 교통편 : 전용 버스 투어
- 숙박 : 한민호텔(제주), 일광호텔(제주)

**여행 요금**

210,000 원

062) 973-9114 <http://imbctour.com>

**서울버스** **여름 풍물 여행**

• 일정 : 15,000원/인원 → 18,000원/인원

**종도 그네 체험관광**

**여행 일정**

- 교통편 : 전용 버스 투어
- 숙박 : 한민호텔(제주), 일광호텔(제주)

**여행 요금**

210,000 원

062) 973-9114 <http://imbctour.com>